

한반도의 전략 안정성 : 이중 위기와 위험 감소 측정

정책 개요

김지나

2024. 02.

아시아 태평양 전략적 위험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호주, 영국의 국가 공무원, 전문가, 종사자들이 모여 어떻게 위협 인식 변화가 새롭고 진행적인 확산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 전략적인 제한을 권장하기 위한 단계를 포함하여 어떤 정책 해결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큰 협력과 핵 위험 감소 외교를 세심히 연마하는 것이 포함되는 논의를 한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와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의 공동 프로젝트다. 본 보고서에서의 설명은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나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 또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 소개



김지나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학부장

김지나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학부장이다. 현재 군축문제 자문 위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무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다양한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총괄 요약

북한의 핵전략은 전통적인 억제 원칙에서 벗어나 핵 능력을 잠재적으로 선제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처음에는 미국을 제지하려 강력한 ICBM 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북한의 전략은 전통적인 억제력을 넘어서 발전해 왔다. 북한이 포괄적인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 재래식전력에 ‘핵 그림자’ 를 만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은 서로의 군사력 증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경쟁의 순환에 갇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군축 안정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와 그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만과 한반도의 동시적인 위기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기 안정성을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래의 정책 권고를 제안한다 :

- **남북회담 재개**로 우발적 대립을 예방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 가동되는 핫라인 수립
- 학술 포럼과 정부 차원의 회담을 통한 불필요한 대응을 최소화하고 위기 고조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위기관리 대화 시작**
- 그레이존 분쟁을 다루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 잠재적인 대만 관련 위기를 위한 사전 준비,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우호국들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안보 협력을 위한 지역 대화 창출**
- 적의 생존 협박을 피하고 핵 위기에 가까운 위기를 위한 융통성 있는 계획을 촉진할 **유연한 대응 방안 개발**
- 북한의 보안 우려와 해소 및 지역 안정 개선을 위한 상응 조치 협상을 권장할 **포괄적인 군비 통제 조치 모색**.

북한과 남한은 서로의 군사력 증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경쟁의 순환에 갇혀 있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북한이 단지 전통적인 억제력 때문이 아닌 선제적으로 핵 보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¹ 이전까지 미국에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무기 개발은 미국에 핵무기 위협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략은 단지 북한의 억제 능력 향상을 넘어 연장한 것 같이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저장량 증가에 따라 이러한 무기의 다양한 잠재적인 용도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견해는 북한의 상황에서 ‘핵무기선제사용포기’ 정책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넓히는 북한의 변경된 핵 정책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잠재적인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킨다.

따라서 여러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의 진화와 북한의 전략적 목표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² 한 가지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 저장을 미국 군사 작전을 향한 제지 및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배치를 방해할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³ 최근의 학술 연구도 특히 북한 탄두의 잠재적인 소형화와 운반 수단의 다양화를 고려하는 핵무기 저장의 실천적 효용을 강조하고 있다.⁴

또한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핵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인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고 한국을 향한 재래적인 공격에서 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본토를 향한 공격 능력을 보여주며 핵 위협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⁵ 또 다른 의견은 북한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제한된 북한의 핵 공격을 향한 미국의 보복을 막기 위해 ICBM 위력의 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분쟁이 발발하면 즉시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으킨다.⁶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여러 대항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협박 인식을 심화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안정 악화는 북한이 군사태세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토론에서는 종종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를 진화하게 만드는 북한, 남한, 미국을 포함한 복합적 역학에 대해 간과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여구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 미국의 전략적 자산 배치가 어떻게 교류되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으로 다음의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러한 변화로 발생하는 주된 우려는 무엇인가? 두 번째,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이 지역에서의 위험감소에 대한 한국의 논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나? 세 번째, 만약 한반도와 대만에 동시적인 위기가 일어난다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전략에서 한국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한 특히 위기관리와 군비 축소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전략 안정성에 대한 한국의 숙고 현황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따져보기 위해 현재 접근 방식의 단점을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제안한다.

북한의 미사여구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 미국의 전략적 자산 배치가 어떻게 교류되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군축 안정에 중점을 둔다.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 및 그것이 그들의 군사전략에 끼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자연적 변화 및 군비 확장 경쟁과 한반도의 안정성 약화를 심화시킬 작용 반작용 역학의 결과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위기 안정성,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적인 위기라는 이중 위기 시나리오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위험 감소와 관리를 위한 정책 권고를 제안한다.

과거와 현재의 평가

군비 확장 경쟁 안정성의 개념은 양측 모두 분열을 일으키는 이점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군비 증강 제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1년에 북한은 제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군사력 현대화 계획을 선보였고 2022년에는 새로운 원자력 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성장은 북한의 핵 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반도의 안정은 북한이 억제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 한국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 능력을 조절함으로써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은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켰고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켰다.

핵에 대한 태도와 연합국의 대응 변화

북한의 개정된 정책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북한 태도의 민감한 변화를 나타낸다(표 1).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를 쓸지도 모르는 시나리오를 자세히 다룬 북한의 수정된 핵 정책의 새로운 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⁷ 이 발표 후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의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북한은 억지력이 핵무기 저장의 주요 기능이라 주장하며 핵무기는 적들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버렸다. 정책은 이제 핵보유국 및 그 동맹국들에 선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을 허용한다. 이 접근 방식은 핵보유국이 '핵무기선제사용포기'를 약속하도록 설득하고 비핵국가에 핵선제 불사용원칙을 제공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과 극명히 대조된다.

더욱이 북한은 의도적으로 핵 이용 조건을 애매하게 만들었고 선제 사용 범위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넓혀왔다. 적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목전의 비핵 또는 북한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WMD) 공격까지 포함되도록 핵무기 사용 기준을 확장하였다. 북한은 또한 전쟁의 고조와 장기화를 막고 막대한 피해를 예상해야 하는 북한 인구의 수행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전술 핵무기의 역할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전술적 수준의 운영 계획을 암시하여 전술 핵무기의 개발 및 배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이러한 무기의 지휘 및 통제(C2) 구조가 불분명하였지만 지금 북한은 C2 능력을 개발하였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운영 계획을 미리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짓지 않았지만, 북한은 만약 핵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적의 공격에 위협을 받으면 미리 결정된 계획에 따라 핵 공격이 자동적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북한의 특수부대는 핵 작전에서 그들의 역할이 잠재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 연습을 시작했다.⁸

표 1. 북한의 핵정책 변화

| | 2013 | 2022 |
|---------|--|---|
| 지휘 및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령관의 독점적 지휘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위원회 (NDC) 위원장의 독점적 지휘권 |
| 유일한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공격에 대한 억제력과 보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처했을 때의 핵 이용 |
| 타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보유국과 그 동맹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보유국과 그 동맹국 |
| 그 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핵실험 계획 핵무기 경쟁에 대한 반대 핵 군비 축소 지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보유국의 책임 핵무기 수명 관리 |

핵무기 사용을 위해 더욱 유연하고 표적화된 전략 개발을 위해 북한은 핵무기의 운송 수단의 다양화에 앞섰다. 북한은 핵 무기력으로 미션의 신뢰할 수 있는 성취를 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하의 핵무기 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고 선언했다.

2021년 1월 발표된 북한의 5개년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밝혔다 (표 2 참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최종 시험’이라 부르는 세 번째 시험인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발사를 하였다.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소개됐지만 작전 효과성은 아직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2023년 4월에 북한은 반접근 전략에 중요한 군사적 가치를 가진 수중 드론인 ‘해일’을 시험했다. 2023년 11월에는 두 번의 시도 끝에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새로운 전술 핵탄두 모형도 선보였다.⁹ 이러한 발전은 철로와 지하 사일로에서의 발사를 포함하는 미사일 시험의 다양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저장량의 확연한 확대와 그것의 잠재적인 적용을 강조한다.

표 2.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

| 무기체계 | 일시 | 비고 |
|-------------|-------------------|------------------------------|
| 초음속 무기 | N/A | 연구 단계가 끝나면 3 번의 시험 발사 실시 |
| 핵잠수함 | 2023년 9월 (발표) | 핵 /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처했을 때의 핵 이용 |
| 수중 이동체 | 2023년 4월 (발표) | 50 번 이상의 최종 시험 |
| 군사 위성 | 2023년 11월 (발사 성공) | 2 번의 시도 실패 |
| 전술 핵무기 | | 철로의 열차와 지하 사일로에서의 발사 |
|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 | 2023년 4월 (발표) | 50 번 이상의 최종 시험 |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무기력의 균형을 잡을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한국 전략의 주요 요소는 ‘3 축’ 시스템이다. 이는 공격의 시작에 선제 공격하기 위한 킬 체인, 미사일 발사 최종단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격 시 지도부를 겨냥해 상대방의 C2를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의 대규모 응징 보복’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¹⁰ 본래 2016년에 있었던 북한의 5 번째 핵실험 이후에 개념화된 이 세 가지 요소는 한국의 대응체계에 활성화되고 통합되었다. 이 운용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지도부를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한 특수 작전 부대와 정밀타격 능력의 사용은 위기 시에 평양이 핵무기 배치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을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북한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상승지배력을 보장하는 힘을 쌓아 그런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힘의 불균형에서 안정이 생긴다는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연합군의 피해 최소화하는 방어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공통적인 두려움을 통해 억제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은 어떠한 핵 또는 재래적인 도발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처벌을 통한 억제로 북한에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미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및 개발 전략의 윤곽에 대한 ‘국방 기술 기획’을 발표했다.¹¹ 3 축 시스템의 투자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중거리 및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지상, 해상, 공중 발사식의 해성과 현무 시리즈 변형 개발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장거리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과 함께 단거리 대함 및 대공 시스템을 포함한다. 한국은 해상 기지의 현무 변형을 시험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첫 비핵국이 되었다.¹² 한국은 강력하고 고정밀한 순항 및 탄도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고속 기동전을 위한 그들의 무장하고 기계화된 전투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축 안정성에 대한 영향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경쟁과 균형을 대응이라는 특징을 가진 상호작용하는 뚜렷한 패턴이 있다. 양측은 상대의 군사 능력 향상에 균형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은 2016~2017년과 2021~2022년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상당히 향상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도 이 시기에 큰 진전을 보였다.¹³ 미국과 한국의 다음 보안 강화에는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가 포함되고 북한이 ‘이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시나리오를 피하도록 핵에 대한 태도 조정을 강요할 듯하다. 결국 이는 동맹국에 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항조치 개발을 하게 할 것이다.¹⁴ 남북이 전략적 이점을 위해 비대칭 능력을 추구하며 자연스러운 경쟁 환경 속에서 그들의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규제나 군비 통제 조치에 관여할 것 같지는 않다.

단계적 축소 전략이 없어서 동맹국은 확장 억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후에 동맹국은 핵, 재래적 무기, 미사일 방어, 고도의 비핵화 능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군사 능력을 강조했다.¹⁵ 그들은 새로운 핵 협의그룹을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자산의 정기적인 가시성 향상 및 핵 억제력 응용을 위한 합동 훈련과 훈련 활동 강화하기 위한 핵 비상사태에 합동계획을 위해 만들어진 쌍방의 메커니즘에 전념했다. 8월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동등한 능력과 협력 심화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정기적인 다양한 영역의 3자 훈련을 발표했다.¹⁶ 특히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발전 및 미사일 협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이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여겨지지만, 그들 또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킬 위험성을 무릅쓰고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한국에서 NATO 스타일의 억제 메커니즘에 언급된 ‘공유’ 혹은 NATO 핵 계획단과 비슷한 ‘계획’ 과 같은 용어가 현저히 누락되었고 미국의 약속 수준과 범위는 미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 해명은 한국은 자동으로 미국의 핵 의사결정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오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반박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전략적 제휴를 청했다. 아시아에서의 미국 동맹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이 지역의 연합체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이 안보 악순환의 위험과 잠재적인 분쟁 악화를 경감시키는 전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남북이 전략적 이점을 위해
비대칭 능력을 추구하고
자연스러운 경쟁 환경
속에서 그들의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규제 나 군비
통제 조치에 관여할 것
같지는 않다.

향후의 시나리오 탐색

위기 안정성은 오판과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고조를 막기 위해 분쟁에서 확대 압력 축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쌍방이 대립 시 선취권이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칭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그들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높여 이전의 몇몇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북한이 위기 시에 무력 사용을 장려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위기 안정성 평가는 단순히 핵 무기력 증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한다. 이 섹션에서는 북한의 제한된 핵 이용 전략 뒤의 전략적 논리를 시험하고 직면한 요건과 문제를 강조한다.

이중 위기 시나리오와 북한의 전략적 계산

초기 연구에서는 이중 위기 시나리오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대해 북한이 제한된 목표 혹은 작전적 이익을 위해 신속한 기습 공격을 하면 득을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전략은 적어도 세 가지 주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이차적 피해 제어와 갈등 악화 해결을 위해 정확한 유도 시스템을 갖춘 저위력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성공적인 선제공격은 미국의 반응으로 측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미국의 능력과 목적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세 번째,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체제의 변동이나 북한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들 위기와 같은 인지된 시도를 하면 자국의 핵심 이익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제한된 핵 이용 전략 실행은 북한의 상당한 도전을 제기한다. 한반도의 국한된 전장은 피해를 방지하고 전면전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규모를 떠나 북한의 어떠한 핵 이용도 미국에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가혹한 보복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은 한미 공격작전에 대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연합군은 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기 발생 시 미국의 행동이 북한 체제의 생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위기 시 북한이 기습을 이용하고 빠른 결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협과 군사태세 변화와 같은 강압적인 신호를 쓸 수도 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미국이 지역 주둔군을 강화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은 아시아에서 잠재적인 분쟁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2023년 3월의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대만 위기 중에 한반도에서 미군 부대 전개를 허용하는 한국의 의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 말에 전 주한미군 (USFK)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중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밝혔다.¹⁸ 한국은 대만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로 넓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덮에 걸릴까 조심스럽다.¹⁹ 한국의 국방부는 한국은 위기 상황인 대만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²⁰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만에 대해서만 논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정서가 되풀이되어 이후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을 위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²¹

대만 위기에 한국이 조심스러운 접근과 해협 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대만에서의 혼란이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은 미국이 만약 대만에서의 분쟁에 연루되면 중립을 유지하려 애를 쓸 것이다.²² 이런 상황은 동중국해에서 잠재적으로 무력 충돌로 발전할 수 있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한반도의 본격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의 위기를 이용하여 북한이 이중 위기에서 미국의 결심을 시험하고 한국 군대의 지역분쟁 참전을 막아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여 현재 상황을 바꿀 기회를 모색할 위험도 있다. 전략적 기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미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대만을 방어에 전념하는 것이 중국을 불가피한 군사 대립으로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 베이징은 무력 충돌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비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어느 쪽이든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학계는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²³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잠재적인 손실을 고려해 볼 때 미국, 중국, 대만이 본격적인 무력 충돌을 할 긴장을 심화할 실질적인 동기가 부족하다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재통일에 대해 점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제한된 무력 충돌이 완전히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 학자들 사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²⁴

많은 한국 학자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을 외교 수완과 내부의 정치적 고려 사항, 국제적 자세의 복잡한 결합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와 외부 요인의 재빠른 외교적 교묘함과 세심한 균형을 요구하는 미묘한 입장에 있다.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는 파벌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민주 진보당 정부와 대만의 확고한 지지자인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낼 수 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시진핑 하에서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는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단언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에 대한 태도 변화는 세 가지의 주요 시나리오를 포함한다.²⁵ 첫 시나리오는 대만 앞바다의 섬들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의 공격을 예상한다. 이런 상황이 대만에 적극적인 장기화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면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축소를 추구할지에 대해 결정하게 할 것이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제한된 미사일 공격, 대포 포격, 심지어 대만을 차지하려는 시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의 목표가 갈등의 경제적 및 외교적 악영향을 제한하는 것일 때 장기적인 지역분쟁으로 심화할 위험이 있다.

압도적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자치권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다. 함선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행동을 되돌리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다른 전략은 대만에 대해 영향을 휘두르기 위한 봉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해군 강화와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면 스스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만 총공격을 포함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해상 및 영공의 패권과 상당한 군수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대만의 해안 방어와 시가지 극복이라는 도전에 부딪힐 것이다.²⁶ 대만은 군대를 동원할 것이며,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개입은 모두에게 큰 비용이 드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전략에는 강도의 범위가 있다. 저강도 전술은 대규모 군사 작전 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력 과시를 포함하고 있다. 중강도 접근은 현존하는 군대로 목표 달성한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고강도 시나리오는 총공격을 생각하고 군사 능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한국의 개입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다.

인도 -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 속에, 미국은 특히 대만 해협과 같이 한반도를 넘어가는 안보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 왔다.²⁷ 위기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필요한 지원 레벨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해협 위기에서의 주한미군과 한국 군대의 연대 정도는 갈등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결정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지상군을 갖췄는데 한국과 대만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포함하는 수송 문제는 한반도에서 연합국의 신속한 전개 및 즉각적 개입을 제한할 것이다. 대만 해협 위기 시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해군, 해병대, 공군 자산의 이용에 먼저 동원될 것 같다. 만약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하면 중국과 대만의 광범위한 갈등에 미군 2 사단의 잠정적인 개입과 함께 미 7 공군 정찰 능력이 처음 배치될 수도 있다. 한국은 상황이 발전하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는 동안 개입 수준을 조절하여 군수지원, 함선 호송, 지원, 역수색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 연합군의 목적을 곡해하는 것으로 인해 선제공격을 한다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중국과 동맹을 나란히 하여 현재의 지역적 상황을 방해한다면 위기 안정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보인다면 심리전, 혼합 전술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직접적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²⁸ 북한은 확실한 미국의 반응, 한미 동맹의 비도발적인 행동, 제한된 이득을 인지할 때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을 포함한 것들을 자제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위기는 이것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70 년의 교착 상태는 북한과 남한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게 하였고, 대만 위기 동안 동맹의 군사적 대응을 북한이 직접적 위협으로 곡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한반도 내부와 그 주변의 뚜렷한 군사적 움직임에 반응할 것이고, 오판한 대립의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북한은 기회주의적인 도발의 이익이 비용을 무릅쓸만하다 평가할지도 모른다. 지역 위기 동안은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현재

상황을 바꾸고, 미국과 정치적 합의를 협상하는 것과 같이 제한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도 모른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에서 다른데로 돌릴 것을 기대하고 잠재적으로 지연이나 제한된 반응을 예상하면 비용은 낮다고 여겨질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동시적인 위기에 북한의 반응은 특히 한반도의 제2 전선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준비와 같은 전후 관계에 크게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준비는 확대된 분쟁에서 북한 행동의 지속 능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 태도를 줄여야만 하고 그것은 미국과의 무력 충돌의 발발을 막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북한이 그런 시나리오로 한반도의 위기를 도발한다면 중국은 끼어들 것 같지 않고 아마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결단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현재 상황을 바꾸는 행동을 한다면 한반도에 관해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북한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대만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 집중하는 동안 미국과 한국이 잠재적으로 양 전선 사이로 그들의 관심을 나누면 제한적인 전쟁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북한이 위기 초래 비용을 낮게 평가하도록 이끌 수 있다.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을 고려하여 고강도 군사교육에 관여한다면 미국의 병역 자원을 확산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국방에 필요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군대는 한반도 방어에 집중할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혼자서 장기전을 지속하지 못하는 북한을 향한 중국 지원의 규모와 기간이다. 중국이 대만과의 분쟁의 일부로 한국을 향한 고강도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한국과의 군사적 및 경제적 마찰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한국이 서해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중국의 북부전구사령부는 강화된 사태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대만 위기에서의 중국 군대의 즉각적인 신뢰성을 낮출 수 있어 중국에는 달갑지 않은 결과다. 그러므로 대만 위기에서 북한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제한되어 있다.

표 3. 위기 평가 : 위험과 불확실성

| | 교전 수준 | 위험 | 불확실성 |
|----|---------------------------------|---------------------------|---------------------------|
| 높음 | 중국이 미사일로 주한 미군 공격 ²⁹ | 한국군의 중국 주요 도시 범위 내의 공격 능력 | 한국 교전과 한미 군사 준비에 대한 대중 의견 |
| | 중국군 - 북한군 연합체가 무력 발휘 | 해상 화물 피해로 인한 양측의 경제적 손실 | 주한미군 재배치 지연 |
| |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간접적인 지원 | 제한된 수준에서의 장기 분쟁 | UN 군 제공자 협력 |
| 낮음 | 중국 개입 없음 | 호의적인 최종상태 | 새로운 균형 |

위기 안정성의 영향

한반도에서의 위기 안정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 균형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사건을 유발하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요인이다. 만약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약화하고 위태롭게 한다고 인지한다면 무력 사용의 위험에 대한 이익을 조심스럽게 평가할 것 같다. 상황의 잘못된 해석들도 위기 불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대응의 우선 사항에서의 변화, 한국 사회의 잠재적 국내 분열, 미국 - 한국 동맹의 균열과 같은 북한의 기대는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할 수 없이 선제공격할 기분이 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더욱 호의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억제력 이론은 다양한 상승 수준에서 상대방을 두고 현저하게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는 상승 강화 주장이 추가 악화에서 북한에 추가 악화를 단념시킬 수 있다고 제의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위기관리는 북한과의 전쟁에 관한 군사 준비의 신호를 피하고, 군사교육의 속도를 줄이고, 평화적인 위기 해결을 위한 방법 제공도 포함한다.³⁰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군사 능력 운영에 통합되면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선제 행동을 위한 동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³¹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파 시스템을 포함한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의 급격한 발달로, 위기 시에 확대 압력을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중대한 타깃에 선제공격하기 좋은 이런 양용 플랫폼은 한국의 취약성을 높여 단계적 축소 노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

상황은 남북 사이의 고의적인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8 년에 서명한 ‘포괄적 군사 협정’ (CMA) 을 북한이 철회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CMA 를 부분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한국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의 국경을 따라 더 많은 군사력과 신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협박했다.

미국 대응의 우선 사항에서의 변화, 한국 사회의 잠재적 국내 분열, 미국 - 한국 동맹의 균열과 같은 북한의 기대는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양측의 공중, 육상, 해상 영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긴장과 분쟁 완화의 약속 없이 강화된 국경을 따라 군사력 과시로 대규모 훈련 지휘, 비무장 지대에서 이전에 제거한 경계 초소 이전, 해상 경계선을 따라 있는 완충 지대에서 수색 정찰 재개와 같은 활동은 평화로운 시기와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두 한반도 상황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추적한 것과 같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할 가능성이거나 군사적 위기감을 부추기기 위해 그들의 사용으로 협박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작은 한반도에 피해를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바탕으로 제한된 핵 이용으로 인한 위기 고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의 무능함, 한미 동맹의 대부분의 방어적인 자세와 같은 행동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준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매우 특정한 조건 하에 선제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군축 안정과 위기 안정성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다. 진행 중인 북한과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은 군비 확장 경쟁에 기름을 붙이고 있으며 상호 죽음의 무기 개발로 이끌고 위기의 잠재적인 비용 증가시키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이중 위기에서 남북 간의 위기관리 채널이 없으면 잘못된 해석들과 오해로 인한 긴장이 증가할 것이다. 보고서는 위험 감소와 위기관리에 대해 다음의 정책 고려 사항을 제안한다.

남북회담 재개

현재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막기 위해 수립이 필요한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의 대화가 부족하다. 2022년 8월에 제안된 한국의 '대담한 계획'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부족하고 추가 개발이 요구된다. 게다가 상호 간의 호혜성에 초점을 둔 계획은 한국의 초기 행동에 반응한 움직임을 취해야만 한다는 북한의 우려를 높인다. 북한과 지속 가능한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로섬 게임보다는 상호에게 유리한 약속이라고 평양에 설득하는데 달려있다. 회담 재개를 위한 상호가 동의하는 길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모임 개시는 필수적이다. 작전용 핫라인 수립은 우발적인 잘못 계산된 대립을 막을 수 있고 우연히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단념시킬 수 있다.

중국과의 위기관리 대화

중국의 잠재적인 반응에 대한 대응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은 중국과의 전용 통신 채널 설치 역시 시작해야 한다. 이 위기관리 채널은 지역 내의 긴장 고조 시 결정적일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 있는 군사적 위기감보다 경제 및 에너지 위기와 같은 부드러운 안보 문제 대화에 더 관여할 것 같다. 그러므로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대화를 위한 트랙 2 단계 플랫폼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조기 경보와 단계적 축소 같은 특정적인 사안과 같은 후일의 공식적 논의를 바탕으로 더 학술적인 대화를 발전시키는 우회적인 접근이 포함될 수 있다.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학술 포럼과 진행으로 시작하는 이 2단계 전략은 공동 조사 연구로 보충한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정보 교환으로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의 개입을 막는 것인지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것인지 상관없이 중국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기관리 전략을 위해 중요하다. 이런 통찰력은 불필요한 동맹국의 대응을 완화시키고 위기 고조의 소용돌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 전략일 수 있다.

안보 협력을 위한 지역 대화

아시아 위기관리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 수립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위험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전면전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정보전, 심리전, 사이버전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여 그레이존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 아시아의 여러 위기를 포함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잠재적인 대만 위기를 앞장서서 주도해야 하고 우호국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각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고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정보 공유, 대응 조치 개발, 메시지 조정, 만일의 사태를 위한 통신 채널 확인에 집중하여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이 접근 방법은 동맹국의 복잡한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동맹국 간의 대화

한국 정부는 대만을 포함하는 잠재적 위기와 적합한 대응 전략에 대해 사전적 조치로 미국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대화는 미국 군대의 전략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전투의 정도와 특성과 후방 지원에 집중하면 대만 해협에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커버할 수 있다. 한국 내부적으로 미국 - 대만 위기에서의 역할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집중하는 것은 동맹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군사 작전을 막고, 이면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유연한 대응 방안 개발

위기 시에는 그들의 국가의 생존이 위협하지 않고 갈등 악화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적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장이 고조된 후 확장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안정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응 시간을 늦추고 선제가 아닌 보복을 선호하는 공격은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전면전을 넘는 다양한 옵션이 필수적이다. 위기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상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포함하여 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 전적으로 핵 옵션에만 의존하면 억제 신뢰성이 의도하지 않게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의 변동할 수 있는 대응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은 핵 위기에 가까운 위기를 위한 상세한 대응 계획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군축 협정 협상

비대칭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비 확장 경쟁으로 빠지는 것은 불안정을 만들 수 있다. 향후의 협상은 핵 위험 감소와 재래적인 군축 협정을 모두 다뤄야만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을 무장 해제시키는 목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군사 능력이 북한에게 협박으로 인지되는 것을 생각하면 향후의 대화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위해 북한의 보안 우려도 다뤄야 한다. 핵과 재래적인 무게 통제 연결은 북한 핵무기와 한미 연합군의 재래적인 군사 능력을 제한을 제안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회담과 북한과 남한 사이의 재래식 무기 회담으로 현재 분리되어 있는 구성 방식의 개혁은 안정 - 불안정 역설, 재래식 및 핵 억제력의 혼합, 미국과 한국 사이의 합동 문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포괄적인 군비 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 논의로의 한국의 약속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조치 협상을 시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적어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Ankit Panda, “No First Use and Nuclear Weap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7, 2018.
- 2 Wootae Hong and Changkwon Hong, “북한의 핵전략 분석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Seoul: KINU, 2018), pp. 95-110; Tae-hyun Kim, “핵무장 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파키스탄 사례 분석과 북한에 대한 함의 [Military Strategy and Power Planning in Nuclear Armed States: A Case Analysis of Pakistan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Military* 108 (2018), pp. 37-82; Sang-kyu Lee,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이후 핵전략 전망 [Nuclear strategy af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st]”, *Defence and Technology* 494 (2020), pp. 122-133; Jun-il Lee, “핵보유 이후 파키스탄 핵억제전략의 변화: 핵능력 발전이 전략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in the post-nuclear age: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capabilities on the change in strategy]”, *Korea Journal of Military Affairs* 8 (2020), pp. 73-104.
- 3 Anthony Ruggiero,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and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on “More than a Nuclear Threat: North Korea’s Chemical, Biological and Conventional Weapons”, January 17, 2018.
- 4 Jae-wan Park,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A study of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s it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7, No. 2 (2022), p. 101; Yong Jang and Jin Shin,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considering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and nuclear oper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86 (2022), pp. 91-119.
- 5 Bruce W. Bennet, “Deterrence of North Korean Limited Nuclear Attacks”, *Korea On Point*, November 27, 2023.
- 6 Robert E. Kelly, “Why North Korea may use nuclear weapons first, and why current US policy toward Pyongyang is unsustainable”,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November 21, 2023.
- 7 DPRK Supreme National Assembl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Law of the Nuclear Weapons Policy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September 8, 2022.
- 8 Han-dae Cho, “북한, 미 전략폭격기 전개에 전술핵 훈련 [North Korea conducts tactical nuclear drills in response to US strategic bomber deployment]”, *Yonhap News*, August 31, 2023,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831007400641>>
- 9 Chaerim Ha, “North Korea unveils tactical nuclear warhead, maximizing nuclear threat”, *Yonhap News*, March 28, 2023.
- 10 Sang-ho Song, “South Korea to create ‘strategic command’ to lead ‘three-axis’ system against North Korea threats”, *Yonhap News*, July 6, 2022.
- 11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Technology Plan”, [in Korean] Press Release, April 18, 2022, <<https://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26&nttSn=41112&menuId=678>>.
- 12 Masao Dahlgren, “South Korea Tests Firs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September 16, 2021, <<https://missilethreat.csis.org/south-korea-tests-first-submarine-launched-ballistic-missile/>>.
- 13 Jina Kim, “Asia Pacific Country Report: South Korea”, (Berline: DGAP, 2023).
- 14 Toby Dalton and Jina Kim, “Rethinking Arms Control with a Nuclear North Korea”, *Survival* 65, No. 1 (2023), pp. 21-48.
- 15 White House,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 16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ust 18, 2023.
- 17 Jina Kim, “The Washington Declaration: Old wine in a new bottle?”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Commentaries*, May 9, 2023, <https://www.apln.network/analysis/commentaries/the-washington-declaration-old-wine-in-a-new-bottle>.
- 18 David Choi, “Abram’s remarks on China challenge ‘very surprising’ to South Korean military”, *Stars and Stripes*, December 28, 2021.
- 19 Cheol-jae Lee et al., “In Taiwan crisis, South Korea also faces a crisis, a choice between the US and China [대만위기면 한국도 위기, 미중 사이 선택의 순간 온다]”, *JoongAng Ilbo*, January 6, 2022.
- 20 Seokjo Noh, “South Korea, US and Japan to discuss possible joint response in the event of a Taiwanese outbreak [대만유사시 한국, 미일과 협의해 공동대응 가능성]”, *Chosun Ilbo*, August 22, 2023.
- 21 White Hous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1; White Hous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2; White House,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3.
- 22 Cheol-jae Lee, “Taiwan Strait Crisis Escalates, Prepare for Spillover on Korean Peninsula [대만해협 위기 고조, 한반도에 될 불똥 대비해야]”, *JoongAng Ilbo*, April 20, 2023.
- 23 Heungho Moon,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Xi Jinping’s third term, war and peace in the Taiwan Strait and Korean Peninsul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Seminar*, January 16, 2023; Jaeheung

- Chung, “최근 대만해협 위기를 둘러싼 미·중 대만 대응 전략 고찰 [Examining the US-China response to the recent Taiwan Strait crisis]”, *Politics and Policy* 355 (2022); Woosun Choi,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BRIEF 2022-51 (2022); Yongjun Han, “트럼프 행정부시기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China’s Crisis Management Strategy for the Taiwan Strait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ino-Soviet Affairs* 44, No. 4 (2021).
- 24 Byungkwang Park,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US-China conflict over Taiwan]”, *KDI North Korea Economy Review* 24, No. 8 (2022), p. 22.
- 25 Mathieu Duchâtel, “Scenarios of crisis in the Taiwan Strait”,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The EU, Japan and a Fraying International Orde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March 22, 2021; Bruno Tertrais, “Conflicts to Come: 15 scenarios for 2030”, Chaillot Paper no. 161 (Florence: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20); Michael E. O’Hanlon, “Can China Take Taiwan: Why No One Really Knows”, (Washington D.C.: Brookings, 2022), p.3.; Mark F. Cancian et al.,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3).
- 26 Joongyoung Mo, “China’s Possible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Taiwan: Focusing on the amphibious landing operational capabilities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 상륙 작전 역량을 중심으로]”,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6 (2022), pp. 37-66.
- 27 Youngchan Song,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 한반도 밖으로 투입 가능 [US military commander nominee could deploy US forces off the Korean Peninsula]”, *Hankyung*, May 18, 20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5186902i>>.
- 28 Sungmin Cho, “양안문제: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Cross-Strait: The potential for armed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 (Seoul: Kyungnam University, 2022); Sungmin Cho and Oriana Skylar Mastro, “North Korea Is Becoming an Asset for China Pyongyang’s Missiles Could Fracture America’s Alliances”, *Foreign Affairs*, February 3, 2022; Byungkwang Park,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Possible military conflict over Taiwan and our response]”, INSS Strategic Report, November 2022. No. 187/.
- 29 Jaepyo Hong, “대만과 한반도, 어디가 더 위험할까 [Taiwan and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more at risk?]", *Nocut News*, May 15, 2023 <<https://www.nocutnews.co.kr/news/5943138>>.
- 30 Alexander George, ed., “Managing US-Soviet Rivalry: Problems of Crisis Preven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3).
- 31 Christopher F. Chyba, “New Technologies & Strategic Stability”, *Daedalus* 149, No. 2 (2020), pp. 150-170.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